

## 열왕기하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원래 각각 한 권이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70 인역에 네 부분으로 나뉘어 제 1 왕국기부터 제 4 왕국기로 되었다. 후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 제 1 및 제 2 왕국기가, 책의 전반부에 사무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어, 사무엘 상하로 명명되다. 같은 때에 제 3 및 제 4 왕국기는 열왕기 상하로 되었다. 열왕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탈무드의 전승과 예레미야와의 병행구절들(왕하 24, 25 장과 렘 39, 52 장) 및 용어의 유사점들을 근거로 예레미야 선지자로 보는 설이 우세하다. 열왕기하가 다루는 연대는 주전 853 년경부터 586 년경 사이로 약 270 여년 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 유다의 여호람부터 시드기야까지, 북 이스라엘의 요람으로부터 호세아까지를 다루고 있다. 열왕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 이스라엘 왕과 남 유다 왕의 즉위 연도를 상대국 왕의 원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이다.

## 노트

1.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야가 병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배반한 족속은? 모압 (왕하 1:1, 3:5) → 모압은 소돔이 멸망한 후 롯과 그의 맏딸 사이에 낳은 아들로(창 19:37) 모압 족속의 조상이다.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의 적대관계는 수없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 때에 가서 모압을 정복하였다(삼하 8:2).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868 년에 지금의 요르단에서 발견된 모압의 돌(Moabite Stone, 또는 메사의 비석 Mesha Stele, 왕하 3:4 에 언급된 모압 왕 메사의 명으로 새겨진 돌 비석)에 새겨진 비문(碑文)에 의하면 모압은 분열왕국 초기 혼란기에 독립하였다가 북 이스라엘 오므리 왕 때 다시 정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아하시야는 어떻게 병이 들었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왕하 1:2)
3. 병든 아하시야는 누구에게 사자를 보내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였나? (애그론의 신) 바알세불 (왕하 1:2) → 블레셋 땅 애그론에서 숭배하던 곤충 파리 모양을 한 우상으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음역하여 바알세불로 기록되어 있다.
4. 아하시야의 사자들이 바알세불에게 가는 길에 만난 선지자는? 엘리야 (왕하 1:3-8)
5. 아하시야의 사자들이 보고한 엘리야의 모습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다 (왕하 1:8) → 여기서 털이 많다는 것은 체모(體毛)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털이 많은 옷을 뜻한다는 것이 정론인데 개역개정에는 아직도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마도 히브리어, 헬라어, 한문 및 특히 KJV 성경을 근거로 한 개역성경을 토대로 개정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NIV – a man with a garment of hair, KJV – an hairy man). 이부분의 히브리어는 רַעַל שֵׁעַר인데 영어로 직역하면 lord of hair 로 털이 많은 사람 또는 털이 많은 옷을 입은 사람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성경학자들은 털옷이 선지자의 상징적인 옷이라는 점(슌 13:4, 마 3:4)을 주목하여 후자가 맞다는 의견이다.
6.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데려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나? 50 부장과 그의 군사 50 명 (왕하 1:9, 11, 13) → 이렇게 3 번에 걸쳐 군사들을 보냈는데 처음 2 번은 엘리야의 말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살렸다(왕하 1:10, 12).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3 번째 50 부장은 엘리야에게 자비를 구하였다(왕하 1:13-15).

7.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 (왕하 2:1-3)
8.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요단 강을 건넜나? 엘리야가 겹옷으로 강물을 치니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와 그 위로 건넜다 (왕하 2:8)
9.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구한 것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 (왕하 2:9)
10.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 놓았다 (왕하 2:11)
11.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로 올라 갔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왕하 2:11)
12. 엘리야의 승천 후 엘리사가 행한 첫 기적은?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이) 요단의 물을 갈랐다 (왕하 2:14)
13. 엘리야가 승천한 후 혼자 돌아온 엘리사를 본 제자들의 반응은? 엘리야를 찾아 나섰다 (왕하 2:15-18) → 엘리야는 요단 건너편에서 엘리사와 함께 건다가 승천하였다 (왕하 2:11). 따라서 제자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제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날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왕하 2:3, 5) 어떻게는 몰랐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요단을 혼자 건너 돌아오는 엘리사를 보았고(왕하 2:14-15)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 보았을 것이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는 설명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다 –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는 기상천외의 걱정을 한 것이다 (왕하 2:16).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성령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보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생각하게 한다.
14. 엘리사는 여리고의 나쁜 물을 어떻게 고쳤나?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왕하 2:19-22)
15. 엘리사의 용모는 어떠했나? 대머리 (왕하 2:23)
16. 대머리라고 조롱한 작은 아이들을 엘리사는 어떻게 하였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곰 두 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 명을 찢어 죽였다 (왕하 2:23-24). → 엘리사의 저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좀 불편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2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목사들이 즐겨 인용하는 단순히 선지자를 조롱한 데 대한 징벌이라는 견해이다. 그보다는 올라가라고 한 아이들의 조롱이 엘리야의 승천을 염두에 두고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보라는 투로 승천이라는 사건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한 징벌이라는 해석이다.
17.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하여 연합한 3 나라는? 이스라엘, 유다, 에돔 (왕하 5-9) → 당시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유다 왕이 임명한 섭정왕이 있었다 (왕상 22:47).
18. 모압을 치기위한 3 국 연합군이 몇일간 진군한 지에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가? 7 일 (왕하 3:9) → 동맹군은 북쪽으로부터 모압을 공격하는 것이 가까운 거리였지만 상대적으로 수비가 견고하여 좀 돌아가더라도 광야길을 통해 남쪽으로부터 공격하기로 하였다.
19. 진군 중 물이 없어서 어려움에 봉착한 3 나라의 왕들이 찾아간 선지자는? 엘리사 (왕하 3:11-12)
20. 엘리사는 찾아온 3 왕에게 누구 때문에 그들을 만나준다고 하였나? (남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문에 (왕하 3:14) → 이스라엘의 여로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왕하 3:2)였지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왕상 22:43)이라는 사실로 엘리사는 그들을 만나 주었다.

21. 엘리사는 여호와의 계시를 어떻게 받았나? (거문고를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왕하 3:15) → 개역성경에는 '엘리사를 감동하시니'로 되어 있었다. 영어 성경에는 NIV (KJV) 모두 'hand of the Lord came upon Elisha (him)'로 되어 있다. 아마도 의역이 과하였기에 개역개정에 와서는 원위치 시킨 것 같다. 그러나 그 뜻은 역시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 또는 감화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 참고로 왕상 18:46의 경우 개역 또는 개역개정 모두 능력이 임하매로 되어 있지만 NIV는 'power of the Lord', KJV에는 'hand of the Lord'로 되어 있다. 한편으로, 거문고를 청한 이유는 아마도 악한 왕 여로암으로 인한 심령의 불편함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고 본다 - 비교 삼상 16:23,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 다윗이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해졌다.
22. 엘리사가 받은 계시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왕하 3:16) → 이 개천에는 비가 안 와도 물이 가득하여 모두가 마실(왕하 3:17) 스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침 해가 물에 비쳐 붉게 보이는 것이 피와 같아 모압 군대로 하여금 3국 연합군이 내란이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게(왕하 3:21-23) 하여, 전투보다는 노략질하러 연합군에 이르렀다가 패하고 말았다 (왕하 3:24-26).
23. 3국 연합군이 우세한 상황에서 모압 왕의 어떤 행동이 이스라엘을 격노케 하고 퇴각하게 만들었나? (왕위를 이을) 왕의 맏아들을 번제로 드렸다 (왕하 3:27) → 적국이 한 짓인데 이 일로 왜 이스라엘이 격노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모압은 그들의 우상인 그모스(또는 몰렉, 밀곰)에게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를 최고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엄격히 금지시키셨다 (레 18:21, 20:3). 따라서 비록 적국이 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24. 엘리사의 제자 중 빛을 지고 죽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 베풀어진 기적은? 한 그릇 있던 기름이 빌려온 그릇 모두에 차도록 생겨났다 (왕하 4:1-7) → 빌려온 그릇의 개수와 믿음의 크기를 견주어 이 구절을 해석하여,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으면 더 많은 기름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오히려 여기에 숨겨진 진리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3절을 보면 모든 이웃에게 빈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되어있음을 볼 때 이 과부는 틀림없이 온 동네 사람에게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받는 은혜는 자신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지만 주위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믿음이 커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으면 그릇을 많이 빌릴 수 없었을 터이니 말이다.
25. 엘리사가 여행할 때 사용할 방을 따로 만들어 준 귀부인이 살던 동네는? 수넴 (왕하 4:8-10)
26. 엘리사의 사환의 이름은? 게하시 (왕하 4:12)
27.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되살아나 눈을 뜨기 전에 한 행동은? 7번 재채기 (왕하 4:35) →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엘리사는 기도하고(왕하 4:33)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다(왕하 4:34) - 비교 엘리야의 이적 왕상 17:21.
28. 엘리사가 길가에 갔을 때 흉년이 들었으며, 이때 제자들이 끓인 국에 독이 있었다. 엘리사는 어떻게 이 독을 없앴나? 가루를 뿌려서 (왕하 4:38-41) → 이 가루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 비교 왕하 2:20-21. 39절에 '들포도덩굴'에서 '들호박'을 뺐다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포도덩굴에서 호박을 따다는 말이다. 우선 포도덩굴을 보면 영어성경 NIV 나 KJV 모두 vine 으로 나온다. 이는 덩굴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포도덩굴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덩굴로 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다. 그리고 '들호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개역성경에는 '들 외'라고 되어 있었다. 개역개정에서 오이가 호박으로 바뀌었는데 영어성경 NIV 나 KJV 모두 'gourds'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영한사전에 '호리병박'이라고 나온다. 따라서 들호박이라는 번역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독성이 있었다는 데에서 또 다시 수공이 안된다. 호리병박은 맛은 별로 없지만 독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중동지방에서 자라는 Colocynth 와 혼돈하여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덩굴식물은 둥근 박과 같은 열매가 열리는데 그 맛이 쓰고 많이 먹을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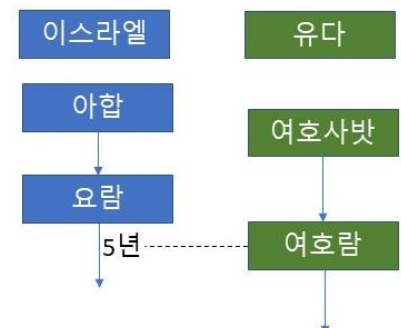
29. 길갈에 흉년이 들었을 때 보리떡 20 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몇 명이 먹고 남았나? 100 명 (왕하 4:42-44)
30.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앓고 있던 병은? 나병 (왕하 5:1) ⇒ 나병은 불치의 무서운 병으로 구약은 레위기 13 장과 14 장을 할애하여 나병환자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진 밖으로 추방하여 격리시키는 것이었다(레 13:4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1 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와 보살핌으로) 전에 아람을 구원한 공이었다 - 왕상 22:29-35 참조.
31.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나아만은 누구를 만나기 원했나?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왕하 5:3-5) ⇒ 나아만은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찾아갔다. 자초지종을 들은 왕은 이 기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람 왕 벤하닷과 시비가 붙을 것을 염려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 (왕하 5:6-7).
32.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했나? 요단 강에 몸을 7 번 씻으라 (왕하 5:10) ⇒ 비교 요 9:7. 엘리사의 이러한 말을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기의 생각을 내세워 분노하였다 (왕하 5:11-12). 나아만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믿음으로 치료받았다는 전통적 해석이 좀 의아스럽다. 이스라엘 포로 소녀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 나선 것은 분명 믿는 자의 모습이지만 이 장면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종들의 말을 듣고(왕하 5:13) 비로서 엘리사의 말을 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해 질 무렵부터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일하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비교된다.
33.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주려고 가져왔던 사례품을 착복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어떤 병에 걸렸나? 나병 (왕하 5:27)
34. 선지자와 제자들이 함께 거주할 처소를 짓기 위하여 재목을 베러 갔을 때 한 제자의 도끼가 물에 빠졌다. 이 도끼를 엘리사는 어떻게 하여 찾았나?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도끼가 떠올랐다 (왕하 6:1-7) ⇒ 엘리사는 제자에게 떠오른 도끼를 집으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의 손에 도끼가 쥐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당사자의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거운 도끼가 물에 빠져 가라앉은 상태에서 물위로 떠 오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떠오른 도끼를 집어 드는 일은 병약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눈 앞의 기적을 보고도 기도만 하고,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아무 행함도 없는 이 세대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장면이다.

35.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진을 친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때 엘리사가 있던 성읍의 이름은? 도단 (왕하 6:13) → 이스라엘 평원에 인접한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성읍으로, 사마리아 북동쪽 약 10 mile (16 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36. 도단을 에워싼 아람 왕의 군사들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엘리사가 기도하니 그 청년(사환)의 (영적) 눈이 열려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 (왕하 6:17)
37.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한 일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사마리아로 인도하였다 (왕하 6:18-19) → '눈을 어둡게'라는 부분을 영어성경 KJV와 NIV 모두 'blindness'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눈이 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절에 언급된 '아람 사람'은 같은 절 중간에 '무리'로 되어 있어 엘리사를 잡으려 온 여러 명의 군사들이 틀림없다. 따라서 실제로 눈이 멀었다면 이 많은 군사들을 엘리사 혼자서 먼 거리(35 번 설명 참조)를 데리고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자기들이 잡으려 온 엘리사를 순순히 따라 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19 절을 보면 이들은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고, 도단에 온 것도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은 판단력을 상실한 혼돈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인다. Blind 는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뜻하기도 하니 설명이 된다.
38.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나귀 머리와 또 무엇을 사고 팔았나? 비둘기 똥 (왕하 6:25) →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비둘기 똥을 사 먹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이 '합분태(鴿糞太)'로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비둘기 똥이라는 뜻이다. 개역개정에 와서 그냥 한글로 풀어서 비둘기 똥이 되었지만, 조류의 똥은 냄새도 몹시 고약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그래서 찾아보니 NIV 에 'seed pods', KJV 에 'dove's dung'으로 되어 있다. 학자들 사이에는 이 2 가지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는 모양인데 ... 지금도 중동에는 '비둘기 똥'이라 불리는 먹기 힘들 정도로 역센 야생 콩 종류가 있다는데 본인은 콩깍지에 한표.
39.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계속하여 거스를 경우 받으리라는 징계의 예언대로 벌어진 일은? 자식을 잡아먹었다 (왕하 6:28-29) → 레 26:27-29 참조
40.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어 민심이 흉흉할 때 여호람 왕이 입은 옷은? 굵은 베옷 (왕하 6:30) → 굵은 베옷은 애통하며 회개할 때 입었던 옷이다(사 37:1, 예 4:1 등등). 특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굵은 베옷을 내어 놓고 입은 것이 아니고 속에 입었다. 그 위에 왕복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을 찢어 속에 있는 굵은 베옷이 드러났다. 이는 그의 통회가 진실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31 절에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한 그의 말을 보건 데 확실하다.
41. 자신을 죽이려 온 왕에게 엘리사는 어떤 예언을 하였나? 내일 (이맘때) 곡식의 값이 떨어질 것이다 (왕하 7:1) → 왕하 6:25 에 '비둘기 똥' 1/4 갑이 은 5 세겔에 거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 밀가루 1 스아가 1 세겔에 매매될 것이라고 엘리사는 예언하였다. 갑은 약

1.2 리터이며, 1 스아는 6 갑이다. 먹지도 못할 '비둘기 똥'을 그냥 밀가루라고 간주하여도 하루사이에 24 배의 양을 1/5 값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또는 1/120 로 값이 떨어진다는 예언이다. 이러한 예언을 들은 한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곡식이 쏟아지는) 창을 열어도,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창 7:11)와 같이 곡식이 쏟아져도, 그럴 수가 없을 것이라 조롱하였다. 이 장관은 왕이 말이나 마차를 타고 내릴 때 의지할 만큼 왕의 측근이었으니 왕의 생각을 그대로 말했다고 볼 수 있다. 엘리사는 그런 장관이 이 이적은 보겠지만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예언하였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왕하 7:17).

42.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는 왜 도망하였나?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왕하 7:6)
43. 수벰 여인은 이스라엘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서 살았나? 블레셋 땅 (왕하 8:2)  
 ⇒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등장(왕하 8:4)하는 것으로 보아,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사건(35 노트 참조)이 있기 전인 것으로 보인다. 성경은 꼭 연대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좋은 예이다. 5 절 후반부에 '저는 그의 아들이니'를 볼 때 엘리사가 살려준 아이가 커서 어머니와 함께 왕을 방문한 것을 알 수 있다.
44.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 왕의 병세에 대해서 물어본 신하의 이름은? 하사엘 (왕하 8:8) ⇒ 엘리사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상반된 대답을 10 절에서 한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히브리 원문에 부정어(*lo'*)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 문장의 구성이 emphatic infinitive 로 부정이 아니고 긍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론이다. 이는 14 절의 히브리어 원문에 부정어(*lo'*) 없이 단순 구성으로 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10 절은 상반된 것이 아니고 병은 낫지만 결국은 죽으리라는 뜻이며 이는 15 절에서 하사엘이 벤하닷을 암살함으로 실현되었다.
45.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본 엘리사가 울은 이유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고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할 모든 악을 알았기 때문에 (왕하 8:11-13)
46. 북 이스라엘 요람 왕 제 5년에 남 유다 왕이 된 사람은? 여호람 (왕하 8:16) ⇒ 이 구절은 정신을 바짝 차려도 헛갈린다. 우선 아합의 아들은 여호람이라 왕하 3:1 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요람이라 되어 있는 점이다. 요람은 여호람의 애칭으로 Thomas 를 Tom 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이름이 같은 데다가 비슷한 시기에 통치를 하였고, 두 이름이 성경 여기저기에 섞여서 나오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혼돈하기 십상이다. 16 절에서는 북 이스라엘 왕의 원년을 기준으로 남 유다 왕의 즉위를, 선왕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기록하였는데 이것 또한 피곤하다. 그래서 16 절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다.
47. 유다의 여호람 왕 때 유다를 배반한 족속은? 에돔 (왕하 8:20) ⇒ '붉은'이라는 뜻으로 이삭의 장남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 또는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 (창 25:30 참조)



48. 에돔이 배반할 때 함께 배반한 성읍은? 립나 (왕하 8:22) ⇨ 가나안의 성읍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하여(수 10:29-30),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고(수 15:20, 42), 후에 아론의 자손에게 주어졌다(수 21:13).
49. 유다 여호람 왕의 아들 이름은? 아하시야 (왕하 8:25)
50. 아하시야의 왕비는 누구의 딸이었나? 아합의 딸 (왕하 8:26) ⇨ 26 절과 27 절을 읽어보면 언뜻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26 절에는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오므리의 손녀, 즉 아합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27 절에는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사위라고 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아합의 집'을 넘겨버려, 어머니 아니면 이모와 결혼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참고로, 26 절은 KJV 에는 오므리의 'daughter', NIV 에는 'granddaughter'로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의 풍습으로 대가 한참 지나도 아들 또는 딸이라고 하였다는 점을 든다. 그 예가 마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이다. 한글성경에는 '자손'이라고 의역되었지만 영어성경에는 KJV NIV 모두 'son'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오므리의 손녀가 맞다. 또 27 절의 '집의 사위'라는 표현은 KJV 에 'son in law of the house of Ahab', NIV 에 'related by marriage to Ahab's family'로 되어 있어 보다 명확하다.
51. 유다의 아하시야 왕과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함께 싸운 아람 왕의 이름은? 하사엘 (왕하 8:28)  
⇨ 노트 44 번, 45 번 참조
52. 엘리사가 제자를 시켜 기름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의 이름은? 예후 (왕하 9:1-3) ⇨ 예후는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한 요람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왕하 9:14-15, 24). 예후는 마침 함께 있다(왕하 9:21) 도망가는 유다의 아하시야 왕까지 죽였다 (왕하 9:27). 참고로 21 절에 '메우라'는 병거에 말을 매고 준비시키라는 뜻이다.
53. 예후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은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어디까지 도망하여 죽었나? 므깃도 (왕하 9:27) ⇨ 아하시야가 왕으로 즉위한 해가 29 절에는 이스라엘 요람 왕 11 년이라 되어 있고, 8:25 에는 12 년이라 되어 있다. 같은 저자가 기록하였는데 그것도 몇 절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소개한다. 우선 히브리 백성들은 새해가 아빕월(출 23:15, 포로기 후에는 니산월 느 2:1)로 시작하는 종교력과 에다님월(왕상 8:2)로 시작하는 민간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기록된 여러 연대들을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북 이스라엘은 종교력을, 남 유다는 민간력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햇수를 계산할 때, 특히 열왕기에서, 1 년이 지나야 비로서 1 년으로 계산하는 '만'과 첫해를 포함시켜 만 1 년이 되면 2 년이라고 계산하는 '수' 두가지 방식을 병행한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1 년의 차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54.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 예후를 누구라고 불렀나? 시므리 (왕하 9:31) ⇨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바야사 가문을 몰살시키고 왕위에 올라(왕상 16:10-11) 단 7 일을 집권한 인물이다. 이세벨이 예후를 그렇게 부른 것은 다분히 조롱과 저주가 들어있는 모습이다.
55. 예후가 살해한 아합의 아들은 몇 명? 70 명 (왕하 10:7)
56. 예후가 살해한 아하시야 왕의 형제는 몇 명? 42 명 (왕하 10:13-14) ⇨ 비교 대하 22:1 에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모두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대하 22:8 에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설명이 열왕기의 기록보다 더 자세하여 정확한 기록으로 여겨진다.

57.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쓴 계획은? 바알에 큰 제사를 드린다 공포하여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 드렸다 (왕하 10:18-19)
58. 아하시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목숨을 구한 왕자의 이름은? 요아스 (왕하 11:2) → 여호람의 아내이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는 두 왕의 통치 기간 중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었다. 아들이 죽임을 당하자 손자들을 죽이고 실권을 장악한 것이다.
59. 아하시야가 예후에 살해되자 누가 유다를 다스렸나?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 (왕하 11:1-3)
60. 왕자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야다 (왕하 11:12)
61.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것은 몇 살 때였나? 7 살 (왕하 11:21)
62.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하였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았나? 23 년 (왕하 12:6) → 드러지는 모든 은을 사용하여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였지만 23 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수리를 하지 않았다. 7 절에 보면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에게 은을 받지 말고 은을 드리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받아서 써버린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대하 24:5 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 게으름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 어찌 되었던 두 경우 다 제시징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9 절에 보면 헌금함을 성전 문 앞에 비치하게 된다. 이 일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요아스 왕의 명령(대하 24:8)에 의해서 였다.
63.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점령한 성읍은? 가드 (왕하 12:17)
64. 유다 왕 요아스를 반역하고 죽인 두 신복의 이름은? 요사갈과 여호사바드 (왕하 12:20-21)
65. 죽은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은? 죽은 시체가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났다 (왕하 13:21) →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왕하 2:11)과 달리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왕하 13:14) 앓다가 죽었다.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 엘리사도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 죄는 반드시 질병을 유발한다는 전근대적인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병에 걸린 사람이, 또는 그의 식구들이, 무슨 죄를 짓기에 그런 병에 걸렸을까 하는 성도는 없어야 하겠다.
66. 유다 왕 아마샤는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멸족하였나? 자녀들은 살려주었다 (왕하 14:5-6)  
→ 같은 절에 설명한 모세의 율법은 신 24:16 참조
67. 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을 무찌른 곳은? 소금 골짜기 (왕하 14:7) → 소금 골짜기의 위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에돔과 전쟁을 했으니 사해와 가까이 남동쪽에 있는 계곡으로 추정한다.
68.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대면한 곳은? 벤세메스 (왕하 14:11) → 대면하였다 함은 전후 문맥으로 보아 회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전쟁을 하기위한 대치였다. 8 절에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대면하자' 하였는데 아마도 일대일의 싸움을 걸었다고 생각된다. 아마샤가 에돔을 무찌르고 기고만장한 면이 있다. 요아스는 그런 아마샤를 조롱하였는(왕하 14:9-10).
69.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예루살렘에 부린 행패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었고(왕하 14:13) 금 은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아 갔다 (왕하 14:14).

70. 아마샤가 반역한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한 곳은? 라기스 (왕하 14:19)
71. 선지자 요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한 왕은? 여로보암 (왕하 14:25)
72. 유다 왕 중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였던 자는? 아사랴 (왕하 15:5) → 일명 웃시야 왕하 15:13, 30, 32, 34, 대하 26:16-21 참조.
73. 유다 왕 중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자는? 아하스 (왕하 16:3) →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함은 불에 태워 죽었다는 뜻이다 (대하 28:3 참조). 사실 그냥 태워 죽인 것이 아니고 우상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였다 (신 12:31 참조).
74. 유다 왕 아하스의 요청으로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서 점령한 곳은? 다메섹 (왕하 16:9)
75.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을 만들게 한 아하스 왕의 명령을 시행한 제사장은? 우리야 (왕하 16:10-11)
76. 이스라엘은 어느 왕 때 우상숭배의 악행을 거듭한 결과 앗수르에 멸망당했나? 호세아 (왕하 17)
77.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의 놋뱀을 부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하 18:3-4) → 불뱀에 물려 죽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모세가 놋으로 만든 뱀 (민 21:4-9). 하나님의 이적의 증거로 거룩하게 보관하였었는데 우상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78.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점령한 앗수르 왕은? 산헤립 (왕하 18:13)
79. 히스기야 왕 때 왕궁의 책임자는? 엘리야김 (왕하 18:18)
80.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라며 유다 백성을 조롱한 앗수르 왕의 신하는? 랍사게 (왕하 18:19-35)
81. 앗수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을 모욕함에 히스기야 왕은 어느 선지자에게 신복을 보내어 기도를 부탁하였나? 이사야 (왕하 19:1-4)
82. 앗수르 왕 산헤립의 신하 랍사게가 돌아갈 때 앗수르 왕은 라기스를 떠나서 어디에 있었나? 립나 (왕하 19:8) → 이 구절이 좀 이상하다 - '립나로 가서 앗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립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즉 립나가 장소인 동시에 사람 이름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개역성경에 같은 부분이 '립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로 되어 있어 립나가 장소임을 명백히 하였는데 이상하게 개정된 느낌이다. 참고로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성경의 핵심 부분을 보면 NIV 는 'fighting against Libnah', KJV 는 'warring against Libnah'로 되어 있다. 추측이지만, 전치사 against 다음에 올 수 있는 동명사는 사람이거나 사물일 수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 개역판을 이해하기 더 힘들게 개정했다는 느낌이다.
83. 앗수르 왕 산헤립에 의해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유다가 위기에 처하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유다를 구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나?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 군사 185,000 명을 쳤다 (왕하 19:35)
84.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수명을 얼마나 연장시켜 주셨나? 15 년 (왕하 20:6)
85. 히스기야 왕의 상처가 낫기 위해 이사야가 한 일은?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았다 (왕하 20:7)
86. 히스기야 왕이 완쾌될 것에 대한 징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 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왕하 20:11) ⇨ 10 도는 NIV 에 'ten steps', KJV 에 'ten degrees'로 되어 있다. 각 step 이 1 도라면 같은 이야기이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갔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시간이(지구의 자전이) 거꾸로 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해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87.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이때 바벨론 사자에게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일을 하였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왕하 20:12-13) ⇨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는 바벨론이 당시의 강대국 앗수르 군대 185,000 을 물리친 유다와 연합하여 앗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이다. 앗수르에 바치는 조공과 침략에 골치가 아팠던 히스기야 왕은 '뜨는' 나라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자 우쭐했던 것 같다. 보물창고와 무기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군사적으로 별볼일 없는 나라라는 것이 들통 났으며, 후에 바벨론의 침략을 자초하게 되었다. 앗수르의 대군을 무찌른 것은 군사적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고 하였다면 어땠을까?
88. 유다 왕 므낫세의 악행이 심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어떤 척도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나? 사마리아를 잔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왕하 21:13) ⇨ 줄자와 수직선을 보기 위한 다림줄을 사용하겠다는 비유적인 표현. 암 7:7-8, 애 2:8 참조.
89. 유다 요시아 왕 때 대제사장의 이름은? 힐기야 (왕하 22:4)
90. 요시아 왕 최고의 업적으로 꼽는 것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왕하 23:1-25)
91. 요시아 당시 애굽의 왕은? 바로 느고 (왕하 23:29) ⇨ 바로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쓰기도 하였다.
92.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과의 전투 중 전사한 곳은? 므깃도 (왕하 23:29)
93. 요시아 왕의 아들로 왕위에 올랐지만 애굽으로 잡혀가 죽은 자는? 여호아하스 (왕하 23:31-34)
94.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대신 왕위에 올린 자는? 엘리아김 (왕하 23:34) ⇨ 바로 느고는 엘리아김을 여호야김이라고 개명하였다. 31 절에 여호아하스가 23 세, 36 절에 여호야김은 25 세라 되어 있으니 그가 형인 것이다. 그런데 왜 형이 먼저 왕이 되지 않았을까? 이 사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요시아 왕이 전사했을 때 반애굽파가 동생을 왕으로 삼았는데, 친애굽파가 애굽 왕 바로 느고를 움직여 형을 옹립하였다고 설명한다.
95.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하 24:1) ⇨ 바벨론의 역사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앗수르 동맹군을 격파하였다. 이에 여호야김은 바벨론 편에 섰으며,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려 애굽으로 진격하였지만 참패당하고 말았다. 이에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은 애굽이 다시 패권을 잡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바벨론을 배반하였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주변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동원하여 1 차 침공을 감행하였다 (왕하 24:2). 그는 또한 애굽도 철저히 쳐부수어 버렸다 (왕하 24:7).
96. 여호야김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야긴 (왕하 24:6) ⇨ 여호야긴 즉위 3 달 만에 바벨론은 2 차 침공을 감행하여 유다의 왕을 비롯하여 왕족, 고관, 보물, 백성, 군인 및 기술자들을 잡아가고 말았다 (왕하 24:8-16)

97.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대신 유다의 왕으로 세운 자의 본명과 새 이름은? 본명 맛다니아, 새 이름 시드기야 (왕하 24:17) → 그는 여호야긴의 숙부였으며 시드기야는 바벨론 식의 이름이다. 어떤 성경학자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볼모로 잡혀간 상황이므로 시드기야를 섭정왕으로 간주하여 유다의 마지막 왕은, 왕하 25:27 및 겔 1:2 등을 들어, 여호야긴이라고 주장한다.
98. 바벨론은 3 차 침공 때 예루살렘을 얼마동안 포위하고 있었나? 1년 6개월 (왕하 25:1-3) → 시드기야 제 9년 10월부터 제 11년 4월까지
99.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남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하도록 세운 지도자의 이름은? 그달리야 (왕하 25:22)
100. 참고자료 - 열왕기하에 기록된 남 유다의 왕

대	이름	성경 구절	통치 기간	특기 사항
5	여호람 (요람)	왕하 8:16-24	8년 (왕하 8:17)	북 왕국 아합의 딸 아달라와 결혼
6	아하시야	왕하 8:25-29	1년 (왕하 8:26)	북 왕국 요람과 연합하여 아람을 침
7	아달라	왕하 11	7년 (왕하 11:3-4)	아하시야의 어머니
8	요아스 (여호아스)	왕하 12	40년 (왕하 12:1)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암살 및 멸족 당할 때 살아 남았다. 초기에는 성전보수 말년에는 우상 숭배.
9	아마샤	왕하 14	29년 (왕하 14:2)	선한 왕이었지만 신하에게 살해됨
10	아사랴 (웃시야)	왕하 15:1-7	52년 (왕하 15:2)	제사장 대신 분향하려다 나병에 걸림
11	요담	왕하 15:32-36	16년 (왕하 15:33) 20년 (왕하 15:30)	선한 왕이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12	아하스	왕하 16	16년 (왕하 16:2)	우상숭배,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13	히스기야	왕하 18-20	29년 (왕하 18:2)	선한 왕, 죽을 병에 걸렸지만 15년의 생명연장을 받았다.
14	므낫세	왕하 21:1-18	55년 (왕하 21:1)	앗수르에 포로, 후에 회개.
15	야몬	왕하 21:19-26	2년 (왕하 21:19)	우상숭배, 신하들에게 살해당함.
16	요시야	왕하 22-23	31년 (왕하 22:1)	율법책 발견, 유월절 회복.
17	여호아하스 (살룸)	왕하 23:31-33	3달 (왕하 23:31)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잡혀가 거기서 죽었다.
18	여호야김 (엘리아김)	왕하 23:34- 24:5	11년 (왕하 23:36)	애굽 왕 느고와 가까이 지내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감.
19	여호야긴 (여고니야)	왕하 24:6-16	3달 (왕하 24:8)	바벨론 포로
20	시드기야 (맛다니아)	왕하 24:17- 25:7	11년 (왕하 24:18)	남왕국 마지막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아들들이 죽고 바벨론 포로.

101. 참고자료 - 열왕기하에 기록된 북 이스라엘의 왕

대	이름	성경 구절	통치 기간	특기 사항
9	요람 (여호람)	왕하 3:1-3	12 년 (왕하 3:1)	바알의 주상을 없앴으나 다른 우상을 섬김
10	예후	왕하 9-10	28 년 (왕하 10:36)	아합 가문을 몰살시킴
11	여호아하스	왕하 13:1-9	17 년 (왕하 13:1)	아람과의 전쟁에 참패
12	요아스	왕하 13:10-25, 14:8-16	16 년 (왕하 13:10)	아람을 격파하고 성읍들을 되 찾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13	여로보암 (2 세)	왕하 14:23-29	41 년 (왕하 14-23)	정치와 군사적 부흥을 이루었으나 부패와 영적 침체를 가져옴
14	스가랴	왕하 14:29, 15:8-12	6 달 (왕하 15:8)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15	살룸	왕하 15:13-15	1 달 (왕하 15:13)	스가랴를 암살하고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도 암살당함
16	므나헴	왕하 15:16-22	10 년 (왕하 15:17)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잔인했음
17	브가히야	왕하 15:23-26	2 년 (왕하 15:23)	우상숭배
18	베가	왕하 15:27-31	20 년 (왕하 15:27)	반앗수르 정책 및 아람과 동맹하여 유다를 공격함
19	호세아	왕하 15:30, 17, 18:9-12	9 년 (왕하 17:1)	앗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였지만 결국 앗수르에 패망함